

#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총력 대응

### 전주시 덕진구, 그늘막 추가 설치·살수차 운영 통한 도로 쿨링서비스 가동 등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취약지 정비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쿨링서비스를 가동하는 등 여름철 재난과 더위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구는 하천 내 수문(14개소)과 제방(6개소), 출입차단기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비상 상황 대비 수문관리자 비상 연락망을 정비했다.

구는 또 공원·녹지 관리인력 10명을 활용해 공원 및 가로수, 산림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 수목 제거 및 배

수로 주변 낙엽 등 퇴적물 수거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위험 상황 발생 즉시 긴급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산사태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27개소에 대해서는 산사태 현장예방단(2명)을 통해 수시 점검하는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피해지역 4곳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 우기에 대비해 상수 침수지역인 오송제 구거 정비

및 하천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비가 그치고 찾아올 본격적인 폭염과 무더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8톤 살수차량을 기관대로와 백제대로 등 16개 이면·간선도로에 투입해 도로 복사열 감소 및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폭염이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7월과 8월 오후 시간대에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노면 변형 방지

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살수를 실시한다.

동시에 구는 폭염 저감 시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현재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187개소의 그늘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폭염의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전주시설공단 노조 박종철 위원장.

## 암 투병 자녀 동료에 위로금 전달

### 전주시시설공단 임직원들, 자발적 참여로 성금·현물증 전해

전주시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돌보는 동료 직원을 위해 정성을 모았다.

박종철 공단 노조 위원장은 16일 임직원을 대표해 공단 직원 A씨에게 성금과 현물증을 전달했다.

A씨의 자녀(10)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 모금이 진행됐다.

그 결과 A씨 가족을 격려하는 마음과 함께 성금 1076만원과 현물증 275장이 담겼다.

박종철 위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꺼이 모금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응원에 힘입어 투병 중인 자녀가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 새로운 쓰레기 배출제 '일몰제·요일제' 홍보 강화

### 7-8월 계도기간 운영·의견 청취 등 시민 불편 최소화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일몰제와 요일제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2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일몰제와 요일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행 이후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새로운 쓰레기 배출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5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문의 사항은 △배출 시간 △요일 및 방법 △재활용 쓰레기 분류 기준 등으로,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유선전화 등을 통한 시민들의 민원을 모두 취합하고 있으며, 이후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협회 등 단체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로운 배출제도인 일몰제는 단독주택과 상가 대상으로 모든 생활쓰레기를 수거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요일제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주 2회 배출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일요일·화요일 또는 월요일·수요일로 배출 요일이 구분된다.

1회차 배출 요일인 일요일·월요일에는 병류·캔류(금속류)·플라스틱

을 배출하고, 2회차 배출 요일인 화요일·수요일에는 투병폐트병과 비닐류,

/김옥기기자

종이류를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 부피가 커 보관하기 불편한 스티로폼은 주 2회 모두 배출이 가능하다.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문의는 시청(063-281-8600)과 완산구청(063-249-6200), 덕진구청(063-279-6200)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일몰제와 요일제 시행은 깨끗한 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청취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덕진구, 폭염 대비 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전주시 덕진구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오는 8월 말까지 '2024년 하절기 폭염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위기정보를 활용해 폭염 발생 시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주거 취약 가구와 전기료 등이 체납된 단전·단수·단가스 세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은 단

전과 단수, 체납, 금융 연체 등 18개 기관의 45종의 위기 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3차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 지원 등 공적 급여 안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지원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구는 이번 3차 발굴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4차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 또는 이웃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

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 노숙인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수시순찰을 진행하고, 순찰 중 발견된 노숙인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 호송 및 긴급 의료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해마다 뜨거운 여름으로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시는 복지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알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700만원 지원

### 18일~8월 1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위해 참여 업소 모집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와 영업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식재료 제공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기존 좌식테이블의 입식테이블 전환 △냉온 조리장 등 위생시설 개선 △객석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비용이다.

업소당 전체 비용의 최대 70%(최대 700만 원)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주시청 환경위생과(현대대상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외식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 사업이 맛의 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